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전망

오 길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실장)

기간통신사업의 발전방향

90년 이후 기간통신사업은 유선 통신부문에서의 유선/방송의 융합(CATV, VOD), 무선통신 부문에서의 디지털화(CDMA) 추세와 부가통신사업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현재의 기술추세라면 2000년대에 접어들면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은 통합(PCS)될 것이고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이 구축되는 2015년을 전후해 기간통신, 부가통신, 방송이 융합되는 멀티미디어 통신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통신사업 환경전망

최근 기간통신사업에 나타나고 있는 국제환경의 변화로는 Global망(GII), 지역망 구축을 위한 국제적 제휴가 가시화되고 있으

며 위성망, 해저케이블망 등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시장 개방의 확산으로 선진국간 상호주의에 의한 기본통신 부문도 개방될 전망이다.

또한 통신사업자간 제휴협력의 확대, 즉 유/무선통신, 방송(CATV) 겸업(수직형), 서비스 지역(시내외, 국제) 확대(수평형), 서비스·H/W·S/W·R&D 협력(다각형)으로 사업구도가 변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PCS, 무선데이터서비스 등 신기술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의 상용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내환경의 변화로는 정보화 촉진정책, 정보통신사업 육성정책 등 정부의 정보통신 관련정책 확대 및 강화를 꼽을 수 있다.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도 주요 변화중 하나이다. 제2이동통신사업자 사업개시('96), 시외전화·PCS·CT-2·무궁화위성 사업자 결정, 지역 무선호출사업자간 연계에 의한 전국망 확보, 자가통신망보유자·CATV 사업자의 통신사업 허용등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국내환경이 변화될 모습들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위성통신방송망 확보, 무선망 확충 및 유/무선 연계망 구축, 민간기업 LAN망 구축 활성화 등 통신망의 고도화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반면 외국기기, 시스템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고도화 및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T-2서비스, 무선데이터서비스 등은 시범서비스를 실시중에 있으며 VOD서비스는 시범서비스를 계획중에 있다.

반면 CATV('95), 디지털 무선통신(CDMA)서비스('97), PCS서비스('98) 등은 곧 상용화될 전망이다.

또한 남북한 교류증대에 따른 북한지역의 통신망 구축을 지원해 통일실현시 통신사업을 주도

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 발전을 위한 과제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사업제도를 정립하고,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수요기반의 확충,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비도 요구된다.

통신사업자도 사업경영을 고객

위주로 전환하고 세계 선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국제화를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통신사업자의 몫이다.

이러한 정부와 통신사업자의 노력이 가시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계 선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기간통신사업의 발전 방향

